「오카야마 시장 메일 메거진(31)」 2014 년 10 월 15 일 호

【ＥＳＤ추진을 위한 공민관－ＣＬＣ회의】

안녕하세요. 오카야마 시장 오모리입니다.

지난 10 월 9 일부터 11 일까지 오카야마에서 세계 29 개국에서 약 700 명정도의 분들의 참석해 「ESD 추진을위한 공민관 -CLC 회의」가 개최되어 첫날은 기조 강연과 사례 발표, 이틀째는 7 개의 분과회로 나뉘어 토론, 그리고 삼일째는 성과 문서의 정리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3 일간의 회의를 통해 인상에 남은 것은 ESD 는 보편적인 개념이면서 각국의 상황이나 파악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일본의 공민관은 지역 주민들의 교류와 배움의 장소라는 요소가 강한 반면, 아시아 국가의 CLC (Community Learning Center)는 학교 교육을 보완하는 (학교 교육 과정에서 학교에 가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기초적인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주된 기능 중 하나로 되어있고, 최종 확약에도「문맹 퇴치에 있어 남녀 격차를 해소하고 가정과 사회에 있어 안전한 환경을 만들자」라는 문장이 들어 있습니다.
ESD 라는 것은 각각의 사정을 반영한 형태로 실천하는 것으로,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만큼의 방법이 있어 폭넓은 것임을 다시 한 번 생각했습니다.

또한「오카야마 확약 2014」로 명명된 이번 성과 문서는 예를 들면 각각의 분과회 등으로 옆에 앉은 사람끼리 논의를하고 그것들이 축적되어

최종 문서로 결실을 맺는다는 소위「참여형」로 만들어졌습니다.
최종 정리함에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노력이 있으셨으리라 짐작이 됩니다만, 매우 훌륭하게 완성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오카야마의 환대가 충분했나 하는 것. 이것에 관해서는 어디 까지나 저의 눈으로 본 느낌이기 때문에 다소 편향이 있을지도 모릅니다만, 각국에서 오신 분들의 반응은 매우 호평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은 안심입니다만, 11 월의 각종 회의를 위해 친절히 대할 수 있도록 한층 더 힘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것은 조금 자랑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회의 종료 후 송별 파티에서 저의 인사말의 마지막에 오카야마에 오신 분들이 많은 순서대로 각 나라의 말로「감사합니다」라고 전했는데 매우 좋은 평가를 받아 분위기가 참 좋았습니다.
여기서 그중에서 여러분에게 익숙하지 않은 「감사합니다」의 일부를 소개합니다.

Terima Kasih (투리마카시／인도네시아)
Knob Khum Kiab (콧푸큰・쿠랏／타이)
IME NNA (이메・은나／나이지리아)
Dhanyabaad (단냐바도／네팔)
Tashakur (타샤쿠／아프가니스탄)